2024년 7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1. 회의개최

연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24.7.30.	대전MBC 4층 회의실 (대면회의)	7/10	6	1	14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손병우 위원장, 박주영 위원, 김영진 위원, 장래숙 위원,
이인복 위원, 김미화 위원, 이섬교 위원,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진종재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이은표 경영국장,
  임세혁 편성국장, 김지훈 보도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 경영진 외 : 이재근 실무담당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10	5	-	-	15	-	15

나. 사업자 반영

구 분	수 용	의견 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15	-	-	15

다. 전월(6월)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보도	**<뉴스 자막 실수>** 날씨를 보도하면서 아나운서는 온도를 29.6도라고 하는데 자막에는 29.7도라고 표기됨	아나운서가 리딩한 수치가 맞는 수치고 자막 실수가 있었음. 더욱 주의하도록 하겠음. **<24. 7월 조치>**	'24.6월
보도	**<국회 해결 지역 현안 문제 보도>**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 문제로 공주대 의대 신설 문제 보도를 했는데 시기적으로 맞는지?	의대 증원 이슈와는 별개로 예전부터 지역 의료가 너무 취약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역 의료 강화 차원에서 22대국회 현안 문제로 보도한 것임 **<24. 6월 조치>**	'24.6월
보도	**<불법 촬영 피해 보도>** 성희롱 성폭력 보도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실묘사를 다르게 설정하고 용어 선택도 주의를 기울이길 바람.	불법 촬영 범죄 장면에 대한 재연 화면 구성과 용어 선택에 대해 신중하게 하겠음. **<24. 7월 조치>**	'24.6월
보도	**<미성년자 성 비위 사건 보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적절한 보도를 해주시길 바람	아동 학대 측면이나 왕따, 따돌림의 현상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객관적이고 팩트 위주로 보도하고 있음 **<24. 6월 조치>**	'24.6월
보도	**<지자체 단체장 평가 보도>** 6월이 지자체장의 임기 절반이 지난 시점이니 단체장들의 구체적인 평가 보도가 있었으면 함	민선 8기 2년 결산과 관련해 다양한 시각에서 단체장들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 보도하겠음. **<24. 7월 조치>**	'24.6월
보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련 보도>** 상인회를 중심으로 반대 보도와 주로 집회나 규탄 관련 보도를 했는데 다양한 시각의 보도가 아쉬웠음.	소진공 이전에 따른 원도심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후속 대책을 촉구하는 보도를 검토하겠음 **<24. 7월 조치>**	'24.6월
교양	**<오늘M -이음 코너>** 창사 60주년 기념 특집으로 제작한 3편의 이음 코너를 잘 봤는데 회마다 그 취지를 잘 살리고 덜 살리는 편차가 있어 보였음	이음은 15분 미디다큐로 선한 영향력 전파와 공직 롤모델 소개 취지도 있었음. 해당부서가 없어져 제작은 중단됐지만 뉴스로 그 취지를 이어갈지 검토중임. **<24. 7월 조치>**	'24.6월
교양	**<오늘M 코너 구성 변경 건>** 수요일에 시사 코너가 있었는데 어떻게 변경된 건지 시사가 부족하고 문화나 사람소개가 풍성해진 느낌	시사 코너를 담당했던 신입PD들이 창사 특집 등을 맡으면서 시사 코너 제작이 어려운데 사안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겠음 **<24. 7월 조치>**	'24.6월
교양	**<건강플러스>** 아이를 진료했던 병원 교수가 직접 출연해서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는데 지속적으로 가족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송을 해주었으면 함	그 방송은 소화기관에 대한 주제였던 것 같은데 건강플러스를 가족 건강을 책임지는 프로그램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음 **<24. 7월 조치>**	'24.6월
교양	**<인생내컷 출연자 관련>** 미래세대를 위해서 기후위기 및 환경과 관련 분야에서 노력하는 분들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보여주길 바람.	이번 주 목요일에 전국 최초로 자연 미술 수업을 하는 서산 석림중학교 미술 선생님을 방송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인물들을 많이 찾도록 노력하겠음 **<24. 7월 조치>**	'24.6월
기타 시청자게시판	**<시청자게시판 의견>** 물벙 기사가 지역뉴스에서 보도된 뒤 곧이어 서울에서도 동일하게 나갔는데 조율이 필요해 보임	본사에 큐시트대로 운행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음 **<24. 7월 조치>**	'24.6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임기)
		해당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2024년 7월에 집계된 시청자 불만사항 회의 전 고지	○
시청자위원 및 임원진이 함께 공유하는 온라인 대화방 개설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대전MBC 홈페이지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 · 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임기)*
위원장	손병우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사)한국언론정보학회	언론단체	23.05.01~25.04.30
부위원장	박주영	대전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23.05.01~25.04.30
위원	장래숙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대전광역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단체	23.05.01~25.04.30
위원	김영진	사회적협동조합혁신청 이사장	대전청년내일센터	소외계층대변	23.05.01~25.04.30
위원	이인복	원도심문화예술행동 사무국장	원도심문화예술행동	문화단체	23.05.01~25.04.30
위원	윤지석	대전광역시의사회 부회장	대전광역시의사회	과학기술단체	23.05.01~25.04.30
위원	이진희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협회장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인권단체	23.05.01~25.04.30
위원	김미화	대전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장	대전YWCA	여성단체	24.05.01~26.04.30
위원	이섬교	재능나눔 징검다리 회장	재능나눔 징검다리	청소년단체	24.05.01~26.04.30
위원	정성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기획홍보팀장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노동단체	24.05.01~26.04.30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창사60주년 특집 이음 보도>** 창사60주년 특별기획 <이음>을 뉴스에서 잘 봤는데 향후 방송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함	**회의록 첨부**	○		
보도	**<폭염 관련 보도>** 폭염보도를 할 때 택배노동자나 노인들, 취약계층이 어떻게 대비하고 예방해야 하는지 보도해 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보도	**<응급 의료 관련 보도>** 응급실 이용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급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보를 알려주길 바람.	**회의록 첨부**	○		
보도	**<판결 관련 보도>** 판결을 보도할 때 재판부나 판사이름을 언급하는데 판결은 법원이 하는 것으로 판사 이름을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임.	**회의록 첨부**	○		
보도	**<항소심 판결 보도>** 음주운전 경찰관 항소심 관련 판결결과만 보도했는데 판결 이유까지도 언급해 주는 게 객관적으로 보임	**회의록 첨부**	○		
보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관련 보도>** 방통위원장 후보자 관련해서 대전MBC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줬으면 하면 아쉬움이 있음.	**회의록 첨부**	○		
보도	**<기후 재난 관련 방송>** 지역개발 사업이 있을 때 기후와 연관돼 너무 근시안적인 것은 아닌지 중장기적인 토론과 논의가 필요해 보임	**회의록 첨부**	○		
보도	**<상수도 이슈 보도>** 폭우로 인해 많은 쓰레기가 상류지역에서 대청댐으로 떠내려 오는데 상수도 문제도 꼼꼼하게 챙겨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보도	**<지역체육회 기부금 관련 보도>** 지역체육회가 공익적인 역할을 한다면 공공의 예산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하는데 기부금 논란도 양쪽의 입장을 들어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보도	**<경찰 사망사건 은폐 의혹 보도>** 경찰 사망사건에 대해 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원하고 직장노조에서는 경찰 근로환경 개선을 원하는데 재발방지 대책 등 후속 보도를 해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교양	**<오늘M 초대석>** 홍성군 현장 생방송에서 초대석에 홍성군수 인터뷰가 15분정도 너무 길게 나와서 불편했음.	**회의록 첨부**	○		
교양	**<시시각각 부활 관련>** 시시각각 포맷을 신설이 아닌 부활로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고 업로드 위치를 알려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교양	**<지역 문화 예술 방송>** 우금치 관련 공연 내용을 다뤄서 좋았는데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 관련내용을 많이 다뤄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교양	**<마당극 관련 구성>** 풍물 마당극을 전개하면서 산내 학살 사건에 대한 영상이 별도로 나왔는데 풍물 자체를 재미있게 다뤄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교양	**<청년 지원 프로그램 홍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 홍보나 사업 매칭을 고민해 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2024년 7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4년 7월 30일(화) 오후 4시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7명)
손병우 위원장, 박주영 위원, 김영진 위원, 이인복 위원,
장래숙 위원, 김미화 위원, 이섬교 위원

▢ 회사 참석자 : (총 7명)
진종재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이은표 경영국장, 임세혁 편성국장,
김지훈 보도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이은표 경영국장
지금부터 7월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총 10분 중에 7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7월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건입니다. 진행자 반복 출연 관련 1건, 홈페이지 서비스 관련 2건, 로컬 편성과 뉴스 관련해서 각각 1건 그리고 기타 문의 사항 3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손병우 위원장
7월 4일 편파 방송은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짐작이 가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대전MBC에서 정치 뉴스를 특별히 하지는 않잖아요.

이은표 경영국장
보통 사안이 있으면 그 내용을 올리는데 없는걸 보면 그냥 똑바로 하라는 일반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7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전MBC 진종재 사장님께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종재 사장
오늘 날씨도 굉장히 더운데 따로 시간을 내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TV는 7월에 개편을 했고요. <시시각각>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을 새로 론칭을 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 첨예한 이슈들을 매주 토론을 통해 담아내고 있습니다.

라디오는 7월 12일부터 지역 6개사가 공동으로 지역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 용어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생존 그리고 수도권과의 공생을 위한 차원에서 전문가들과 전략적 해법을 모색해 보는 프로그램을 매주 월요일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도 소중한 고견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이번에는 시청자위원을 대표해서 손병우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고 이어서 정기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5월에 새로운 위원님들 위촉되시고 7월 회의에 가장 많은 위원님들이 함께 자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대전MBC는 60주년 각종 사업이나 프로그램도 준비 중에 있는데 다른 일로 어수선해지지 않게 중심 잘 잡고 신설 프로그램이라든가 기존 프로그램들을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자위원님들의 모니터링 지적 사항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섬교 위원님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이섬교 위원
7월에 방송을 보면서 시시각각이라든가 라디오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못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일단 7월 방송도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 많았거든요. 6월처럼 전반적으로는 다 좋았는데 조금 불편했던 게 몇 가지 있어서 섞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3일에 <오늘M>을 홍성 스카이브릿지 건축물 앞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했는데 날씨가 좋지 않아서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진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능숙하게 잘하셨어요. 근데 보는 입장에서 준비된 용지가 날아가면 어떡하지 할 정도로 날씨가 안 좋았거든요. 진행이나 편성 부분들은 나무랄 데가 없었는데 초대석에 이용록 홍성군수님이 나오신 시간이 15분이 넘었어요.

중간 중간에 군수님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방송사 측에서 요청을 하신건지 아니면 홍성군에서 얘기를 하신건지는 모르겠으나 군수님께서 지나치게 말씀을 많이 하셔서 민선 8기를 외울 정도인데 차라리 군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나 홍성군청에 있는 분들의 모습들도 잠깐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어쨌든 그 방송에서는 군수님 한분이 15분을 넘게 말씀하셔서 불편했고 이전에 김미화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군수님이 포커스로 나왔던 방송에 대한 부분들을 상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7월 25일 <오늘M>에 삽교천 누룽지 백숙 내용이 너무 좋았거든요. 누룽지 백숙에 대한 프라이드나 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도 좋았었는데 바로 옮겨서 청도 복숭아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영동도 복숭아가 있고 조치원도 복숭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저트도 아닌데 굳이 청도 복숭아 맛에 대한 평가는 대전MBC이기 때문에 아쉬웠어요. 저도 대구 사람이라 청도 복숭아를 좋아하지만 그래도 영동이나 조치원 복숭아를 지역MBC에서 볼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했고요.

7월 29일과 30일에 창사60주년 특별기획으로 <이음>이라는 프로그램을 뉴스 안에 넣은 걸 보면서 내용이 너무 좋았거든요. 노르웨이에 입양된 분이 33년 만에 부모님을 찾으러 돌아오고 암 투병 중인 얘기가 인상 깊었는데 진행하시는 분이 왜 <이음>으로 지었는지 <이음>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음>이 주기적으로 어떤 방송에서 어떤 시간대에 나온다는 향후 방향에 대한 말씀을 안 해주신 게 조금 아쉬웠어요. <이음>을 또 보려면 언제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7월에도 너무 애쓰셨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이어서 김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7월 장마로 인해서 폭우 폭염이 계속 있었는데 대전지역 특별 재난지역 선포에 대해서 후속 보도를 이어가면서 알려주신 것이 좋았고요. 폭염 때문에 사람들이 지치고 힘든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데 폭염 뉴스를 전하면서도 해수욕장이나 늦은 시간대 지인들하고 더위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표정의 시민들을 인터뷰해서 전달해 주신 뉴스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왜 뉴스를 안 보냐고 물어보면 너무 피로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똑같은 전달이라도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잠깐이라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전해주신 점이 좋았습니다.

항상 폭염이 있을 때마다 택배 노동자나 노인들,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하고 대비하고 있는지도 예전에 보여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금산 삼계탕 축제를 하고 있는데 재해 때문에 오락성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수재민 돕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려주셔서 그 점도 인상 깊고 좋았습니다.

지금 대전 지역도 병원 응급실 이용이 원활하지 못한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번 주말에 응급실을 이용하려고 세 군데 대학병원에 전화해 보고 찾아봤는데 모두 의사가 없고 진료를 못한다고 해서 다른 병원을 알아보고 했는데요. 일반 시민들이 응급실에 갈 일이 없다가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결국에는 119를 불러서 가까운 병원으로 가야 하는지 시민들의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이섬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사 60주년 <이음>에서 대전역에서 길을 잃었는데 해외 입양된 사례, 부모님을 찾고자 하는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이음>의 취지를 듣지는 못했지만 예전에 어릴 때 방송에서 이산가족 찾기를 많이 봤는데 뭔가 이 처럼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지는

그런 공공성을 잘 활용해서 60주년 기념으로 의미 있는 내용을 방송하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우 위원장
이어서 박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영 위원
저는 뉴스를 보면서 궂은 날씨가 많았기 때문에 우천 폭염 이런 날씨에 촬영하러 가시느라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극한호우에 대해서 기본적인 보도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으로 배수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찾으시고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위해서 문제점을 삼아주시는 것도 좋았습니다. <시시각각>은 찾아서 보려고 했는데 위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대청댐에서 방류할 때 수자원공사에서 디지털 기술로 재난 대응을 한다는 보도는 대전에 수자원공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도시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같이 접목해 주셔서 좋았고요. 전자통신연구원에서 AI로 범죄 유행도를 예측한다는 보도도 참 잘해주셨습니다.

화학연구원에서 코로나 증식 원인을 밝혔다는 보도와 카이스트에서 빛으로 기억을 조절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보도를 할 때 그 분들이 보도자료 인지 연구자료 페이퍼인가를 그냥 비춰주시더라고요. 나름 전문적인 내용을 비춰주기만 하셔서 참신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어렵지만 알아서 보시라는 느낌이 있어서 원래 이렇게 보도를 했었나 갸우뚱하기는 했습니다.

많은 판결을 보도하실 때 판사님 이름을 언급하는 것 같아 조금 의아했었어요. 사실 판결은 법원이 하는 것이고 그 재판부나 판사가 하는 게 아니라고 저희는 배우는데 몇 단독 무슨 판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심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근데 모든 재판부를 다 그러시는 건 아니고 어떤 때는 또 빼시기도 해서 재판부만으로 표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판결 이유에 대해서도 7월 2일 보도를 보면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했는데 1심에서 집행유예였고 항소심에서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다. 여기까지만 딱 언급하시고 말았어요. 마치 경찰관이라서 법원이 어떤 혜택을 준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끝맺음이 되는데 그렇게 했던 판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언급을 해주시는 게 객관적인 보도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인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인복 위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관련해서 대전MBC를 방문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남의 집 얘기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주변에서는 대전MBC가 문제가 있다 없다 여부를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심에 있어서 힘든 점은 있겠지만 궁금하기도 해서 가볍게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 다큐멘터리 창사 60주년 <이음> 코너에서 서구청과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방송됐는데 서구청에서 후원을 해서 제작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방송에서 다룰 수는 있겠지만 너무 인물 중심으로 가면서 정치인이 계속 표현되는 게 다소 불편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인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정제되고 다듬어진 선에서 정책과 함께 만들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인생 내컷>에서 우금치를 인물과 단체를 중심으로 잘 다뤄주었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문화와 지역예술에 계속 관심을 갖고 다뤄주시는 부분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문화들 그리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술들도 보도와 편성에서도 많이 다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손병우 위원장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영진 위원
저희 단체가 청소년 관련 사업들을 하다가 자립 준비 청년 분들의 일자리 지원을 하게 됐는데 매칭 받아서 지원받을 자립 준비 청년을 찾는 게 워낙 어려워서 여기저기 찾다가 5월 8일에 방영됐던 <오늘M>에서 자립 준비 청년분들 지원하는 민간단체들을 소개해 주는 코너가 있었거든요. 해당 방송 보고 일자리 지원 필요한 청년 2명 정도 일자리 매칭을 해줘서 지역 방송의 역할을 이렇게 가까운 데서 체감할 수 있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자립 준비 청년을 비롯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이나 지원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청년들한테 직접적으로 매칭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지역 방송사에서 공익적으로 이런 활동을 홍보하거나 매칭하는 것들을 적절하게 연결해 주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폭우 때문에 대전도 그렇고 여러 지역들이 많은 피해를 입으셨는데 대전MBC에서 기후재난과 관련해서 현장 상황도 적절하게 반영하고 시민 분들이 입으신 피해도 적절하게 잘 보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고민이 드는 건 앞으로의 기후재난과 관련된 보도나 프로그램들이나 혹은 방송사에서 논의하는 토론의 방향들이 지금과 같아야 되는가라는 고민은 들더라고요.

그 동안에 우리가 기후재난을 마주할 때는 100년에 한 번 또는 2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표현하는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보다 더 많은 빈도로 자주 내리게 되고 우리가 일상으로 새롭게 마주해야 하는 뉴노멀인데 이런 부분들을 지역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다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7월 21일 <시시각각> 프로그램을 잘 봤는데요. 다뤄야 될 내용들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전반적인 느낌은 지역 방송에서 다루는 기후 재난에 대한 토론과 서울 혹은 다른 지역에서 다루는 기후위기나 재난 관련 토론과 별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이슈 혹은 전국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 지역은 어떻게 소화하고 얘기해야 되지 하는 고민들이 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찾아보니까 환경단체들이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갑천에 야외수영장을 대전시가 158억 원 들여서 만든다고 하는데 폭우가 내리면서 그 곳이 완전 잠겼었죠. 또 가까운 금산에서는 21억 정도를 들여서 파크 골프장을 천변에 하나 만들었는데 이번에 그곳이 준공된 지 10일 만에 잠겨서 사실상 매몰 비용으로 처리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앞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개발 사업이든 혹은 어떤 사업이든 간에 기후와 연관 지어서 조금 더 미래에 대한 대비도 얘기하고 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안들이 너무 근시안적인 느낌은 아닌가 이런 부분도 고민해가면서 좀 더 지역에 맞는 중장기적인 기후재난에 대한 토론이나 논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향은 아마 많은 분들과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전MBC에서는 보도를 하셨는지 잘 못 봤는데 JTBC에서 대청댐 쓰레기 문제를 다뤘었어요. 폭우 이후에 워낙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당연히 상류 지역에서 쓰레기들이 많이 떠내려 오거든요. 대청댐 쪽에 그 쓰레기가 거의 섬처럼 뭉쳐서 기자분이 그 위에서 그냥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쓰레기가 그만큼 많이 쌓여서 상수도 이슈화 부분도 계속해서 꼼꼼하게 챙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도 관련해서 불편한 부분이 하나 있었던 건 대전도시공사 사장님이 지역체육회 기부금을 주면서 기부 명의자를 사장님으로 한 것은 권익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니까 대전도시공사가 기부금을 끊었고 그것 때문에 지역체육회가 굉장히 곤란한 처지가 되었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보도만 봤었을 때는 느낌이 마치 시민단체들이 그 기부금을 암암리에 계속해서 냈었던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체육회를 어렵게 했다는 논조로 들렸거든요.

근데 지역체육회가 체육회로서의 어떤 공익적인 목표나 활동들을 계속한다고 하면 개별적 성의에 의한 혹은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기부금 체제가 아니라 공공의 예산을 공식적으로 잘 받아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는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부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말라는 논조로 들리는 한쪽의 입장만 계속해서 강조하는 듯한 보도여서 이 부분들은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우 위원장
아주 자세하고 방대한 모니터링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장래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장래숙 위원
지난번 남유식 아나운서가 진행이 조금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요즘은 참 잘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남유식 아나운서에 대한 칭찬을 먼저 해주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시청자의견 7월 4일자에 편파방송 얘기 나오잖아요. 이날부터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주셔서 궁금하더라고요. 인사청문회를 다 봤는데 저는 대전MBC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에서 다 나올 얘기니까 앞서서 대전MBC에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7월 내내 이진숙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 피곤했어요.

마음을 달래려고 <인생 내컷>을 봤는데요. 카메라 감독님의 디테일과 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한산모시 무형문화재 할머니를 중심으로 놓고 물 흐르듯이 카메라 감독님이 잡아주시고 거기에 내레이션도 중간 중간 톡톡톡 해 주시는데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고요. 초록색 자연도 너무 잘 담아주셨어요. 지금도 귓가에 들리는 게 할머니의 콧노래예요. 그걸 계속 중간 중간 틀어주시는 거예요. 음악도 굉장히 가벼워서 한산모시 할머니를 보면서 한산모시가 참 편안하고 저런 일을 하면 참 행복한 거구나라는 힐링을 느꼈습니다.

우금치 내용은 30년 전부터 봤는데 그 풍물의 마당극을 중심으로 잡을 건지 아니면 대표를 중심으로 잡을 건지 헷갈린 것 같아요. 인터뷰 장면이 너무 많았고 우금치 공연 중 산내 학살 사건도 그냥 내용만 얘기하면 되는데 학살 사건에 대한 장면도 아예 내보냈거든요. 그런 건 불편하고 안 내보내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툭툭툭 끊기는 느낌이 들어서 젊은 사람이 봤을 때 세상의 얘기들을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게 풍물이구나 하고 건드려줬으면 참 재미있게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메라 감독님과 내레이션 해 주셨던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우 위원장
고맙습니다. 저도 그 <인생 내컷>을 봐야겠네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진숙 후보자 관련해서는 MBC와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로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 특히 대전MBC는 대중들 관심의 당사자가 돼버려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어려운 그런 이슈가 돼버렸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직설적이지는 않지만 완곡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대전MBC는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발언을 하게 될 것인가 궁금해 하는 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 신중하게 태도를 취하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어떤 시점에선가는 어떤 식으로든 입장이 나타나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도 내부에서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병원들이 장기화되면서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다가 한양대병원이니 충남대병원 등 병원 파산이 걱정되는 단계가 됐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계속 뭔가 저질러졌는데 해결은 되고 있지 않은 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추적해 가면서 그 여파가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지 계속 취재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시시각각은 신설인가요? 복귀인가요? 부활인 거죠. 그래서 신설이나 다른 포맷 형식으로 한다기보다는 부활을 선택하신 것도 궁금하고요... 보충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이어서 저희 의견 제시에 대한 대전MBC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7월 29일 뉴스에서 경찰 사망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서 가족들은 진상을 규명하고 원통한 마음을 보도하고 싶은데 경찰에서는 그렇게 원치 않았다는 내용과, 직장 노조위원회에서 근로환경 개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도해 주신 점이 경찰이 근로 환경이나 업무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일하는 기관에서도 경찰과 업무 협력을 많이 하는데 모든 것을 다 해내라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후에 후속 보도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이라든지... 그래서 대전경찰청은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후속 보도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훈 보도국장
말씀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기획 <이음>에 대해서 좋은 반응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 다시 볼 수 있는지는 저희가 딱딱 정해놓고 송출하기가 어려서서 그런 사안들이 있을 때 소식을 발굴해서 자주 소개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서 경찰관 사망 사건... 오늘도 그 유족들하고 경찰 직협이 예산서를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팔로우 업해서 속보를 쓰고 있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게 순직 처리인데 꾸준히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병원 응급실 현장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경찰 출입 의료 담당 기자들이 좀 더 챙겨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폭염 관련 취약계층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판결문 판사 실명 공개는 제가 계속 배워왔던 건 보도 준칙에 판결문을 쓸 때는 독립적인 사법부라는 인식 하에 단독도 판사 이름을 명기하도록 배웠고 지금 기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변동 사항이 있는지 살펴봐서 그 부분에 개선점이 있으면 바꿔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방송 뉴스가 길이 때문에 판결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세세히 담지 못하고 약간 미흡한 점을 저희 스스로도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제된 단어들로 작성해서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시각각>을 유튜브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고 말씀 주셨는데 대전MBC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위치가 맨 하단에 있어서 쉽게 검색은 되지만 유튜브 채널로 찾을 때는 어려우신 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고요.

이인복 위원님 <이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지난달에 많은 지적을 받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후재난에 대해서 지역 차원에서 의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방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들의 리빙 랩 같은 것들... 실생활과 기후위기가 어떻게 접목되는지 그런 활동들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셔서 시민들과 같이 우리 일상생활의 기후 재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아젠다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동으로 노력해 보면 좋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 사장의 육상연맹 기부금 논란은 체육 담당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이 사건 때문에 다른 가맹 경기단체에 지원이 많이 없어진다는 취지였고요. 참여연대 쪽에서 의혹 제기도 하셨는데 쌍방의 입장이 모두 담길 수 있도록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장래숙 위원님, 이진숙 전 사장 건에 대한 보도를 앞장서서 해달라는 주문이 있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팔로우 업을 하긴 했지만 미흡했던 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 추이를 살펴보면서 여건에 맞게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시각각> 부활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포맷도 바꾸고 싶었지만 인력난을 얘기할 수 밖에 없고 방향성은 현장 ENG물입니다. 대전판 2580을 만들고 싶지만 카메라 기자나 취재기자 인력이 보강되는 대로 조금 더 색다른 모습으로 토론도 들어가면서 ENG물이 차츰 보강되는 체제로 변화를 줘볼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주셨는데 토론이 1년만에 부활됐으니 좀 더 지켜봐 주시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세혁 편성국장
이섬교 위원님 말씀하신 7월 3일 홍성 스카이타워에서 <오늘M> 생방송을 진행했는데 그날 비가 엄청 올까 봐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 비는 오지 않았고 바람이 많이 불었었죠. 사실 지역 방송의 제작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자치단체 협찬으로 프로그램이 꾸려지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보통 그 지역의 명소 한 꼭지 또 먹을거리 한 꼭지 그리고 자치단체장을 모시고 15~20분 정도 시정이나 군정을 다루는데, 다음부터는 자치단체장 얼굴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게 영상을 다채롭게 해서 삽입한다든지, 또 평상시 자치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자료 화면을 모아서 다채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월 25일 방송에서는 누룽지 백숙이 나왔다가 뒤이어 청도복숭아가 나왔는데 보통 목요일에는 우리 지역에서 만든 꼭지가 두 꼭지거든요. '골목의 맛'과 '문화가 소식'인데 나머지 2개 정도는 타 지역 꼭지를 배치합니다. 지역사가 서로 교환해서 만들다 보니까 닭백숙을 먹었으니까 제철 과일이 타 지역사에서 올라온 게 있어서 이걸 배치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배치한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희 지역의 과일 먹을거리도 다른 곳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님, 창사 60주년 기념으로 의미 있는 방송들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9월과 10월에 음악회 공개방송과 특집 다큐멘터리를 많이 준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인복 위원님 말씀하신 <인생 내컷> 우금치 방송에 대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도 방송에서 늘 봐왔던 분들이어서 반갑게 저도 봤거든요. 이런 문화예술 부문을 꾸준하게 잘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 자립이나 공익적 지원 활동을 많이 소개하고 연계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고요.

금산의 파크골프장 추진이라든지 대청댐 쓰레기 그림 등은 저희 라디오 <시대공감>에서도 이달에 다뤘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주민들의 생활과 연관된 이슈들은 더 발 벗고 다뤄서 지역 언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래숙 위원님께서 남유식 아나운서에게 칭찬해 주셨잖아요. 대전MBC의 소중한 자원인데 좀 더 지역에서 스타화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인생내컷> 한산모시 방윤옥 선생님은 저도 즐겁게 봤는데 내레이션 성우도 비용이 적당한 분

이에요. 저희가 일부러 콘셉트를 그렇게 잡았고 더 자연스럽다는 평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우금치 류기영 대표님이 사회 고발적인 것도 많이 하는 마당극이다 보니까 그 내용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인물이나 단원들 부분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던 것 같아요. 장래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당극 자체에 흥이 나는 면이 부각되지 않아 아쉬웠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개 지역MBC가 라디오 12부작 특집 다큐 토크멘터리를 공동 제작해 매주 월요일마다 저녁 퇴근길에 방송이 나가고 있거든요.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인데 현재 4부까지 나갔어요. 1부에서는 김영진 위원님이 특별 출연하셔서 지역의 6개사 대표 패널들과 함께 열띤 토론을 벌이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메가시티 그 다음에 이민 정책 교육 주제별로 해서 9월 말까지 방송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텔레비전은 지역의 소리를 채집하는 기획을 해서 이 것을 노래로 승화시키는 신설 프로그램을 제작해 8월 15일 저녁 9시부터 첫 방송이 되거든요. <인생 내컷> 시간대에 방송되고 <인생 내컷>은 시간대를 옮길 예정입니다. 제목은 라이브 라이프 사운드인데요. MC가 KCM 강창모 씨인데 가수들과 작곡가 분들이 지역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지역의 소리를 음악으로 승화시키는 프로그램을 론칭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올해가 창사 60주년입니다. 60주년 TF를 구성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사회에서 50년, 100년, 그리고 갑자가 있는 60주년을 의미 있게 생각해서 저희도 지역 시청자들에게 받은 사랑을 회복하면서 시청자 중심의 공익적 방송으로서 공적 책무를 선포하는 행사를 갖겠다는 취지로 기관장님들만 모시지 않고 시청자 중심 행사를 치르려고 합니다.

9월 26일이 창사 기념일인데 그 날 오후 4시에 공개홀에서 기념식을 할 예정입니다. 시청자위원님들께도 다음 달에 초청장을 보낼 예정입니다. 역대 시청자위원장님들도 모실 예정이고요. 그 자리는 미래 비전선포도 있지만 시청자들을 모셨으니까 간단한 공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수 박창근씨가 콘서트 수준의 공연을 하고 유명 뮤지컬 갈라쇼도 준비하고 대전MBC 소년소녀합창단도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행사를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8월 한 달 동안 편성국에서 사연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대전MBC와 우리 가족,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사연을 공모하고 선별을 해서 상도 드리고 초청도 할 예정입니다.

대전MBC가 한화그룹과 한빛대상을 제정해서 시상한지 올해로 20년이 됐고 금강미술대전은 40년입니다. 그래서 한빛대상 수상자 중에서 특별한 분들을 모시려고 하고요. 문화예술체육부문의 대표성 있는 분들... 이봉주 선수라든가 나태주 시인 등 섭외가 됐습니다. 성심당 임영진 대표 등 모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략 200여 분 정도 초청을 해서 공연도 같이 하고 행사도 하고 간단한 다과도 같이 나누고 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10월 31일에는 대전예술의전당에서 대전시향과 함께 대전MBC 창사 60주년 기념음악회가 있습니다. 여자경 상임지휘자가 지휘하는 시향음악회에 협연자 두 분을 초청했는데 대전출신 뮤지컬배우 차지연씨와 <나혼자 산다>에서 인기를 얻은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입니다.

저희가 창사60주년 기획으로 준비한 공식 행사는 이 정도입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대전세종 충남의 지역의 시청자이고 지역뿐입니다. 60주년 행사는 의미 있게 꾸릴 예정이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셔서 사연 공모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정리해서 카톡에 공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병우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진종재 사장님 마무리 인사로 마치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2024년도가 대전MBC 창사 60주년의 해로 긴 세월 기억되기를 바라고요. 60주년을 중심으로 대전MBC가 2024년을 잘 꾸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종재 사장
최근에 회사와 관련된 보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관심 있게 많이 지켜봐주신 것 같고요. 많은 걱정들을 해 주셔서 든든한 힘이 듭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보다 더 꼼꼼하게 보시고 말씀해 주신 의견들은 충분히 프로그램 제작할 때 얘기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저희 회사와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뵐 때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 내주시고 고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이상으로 7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